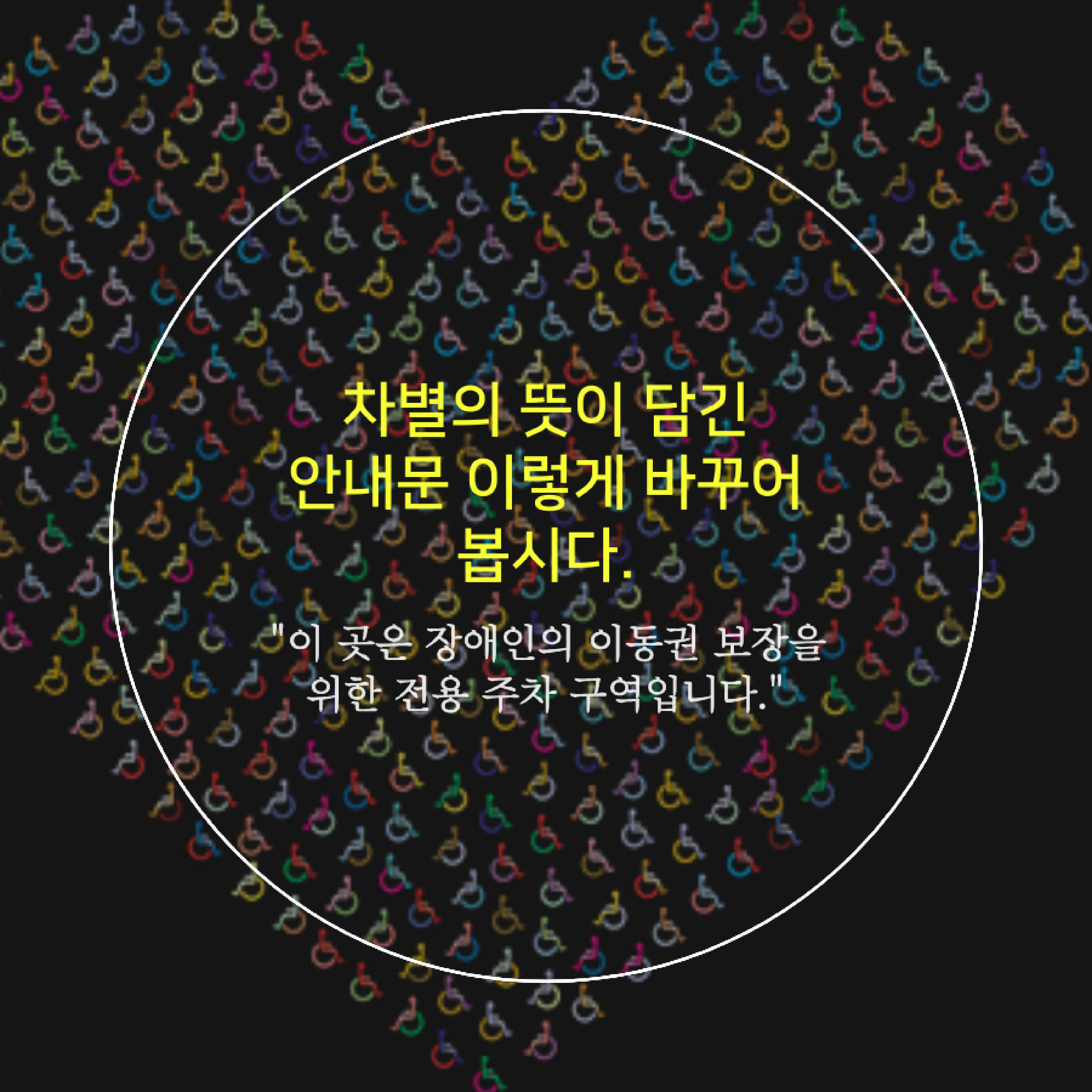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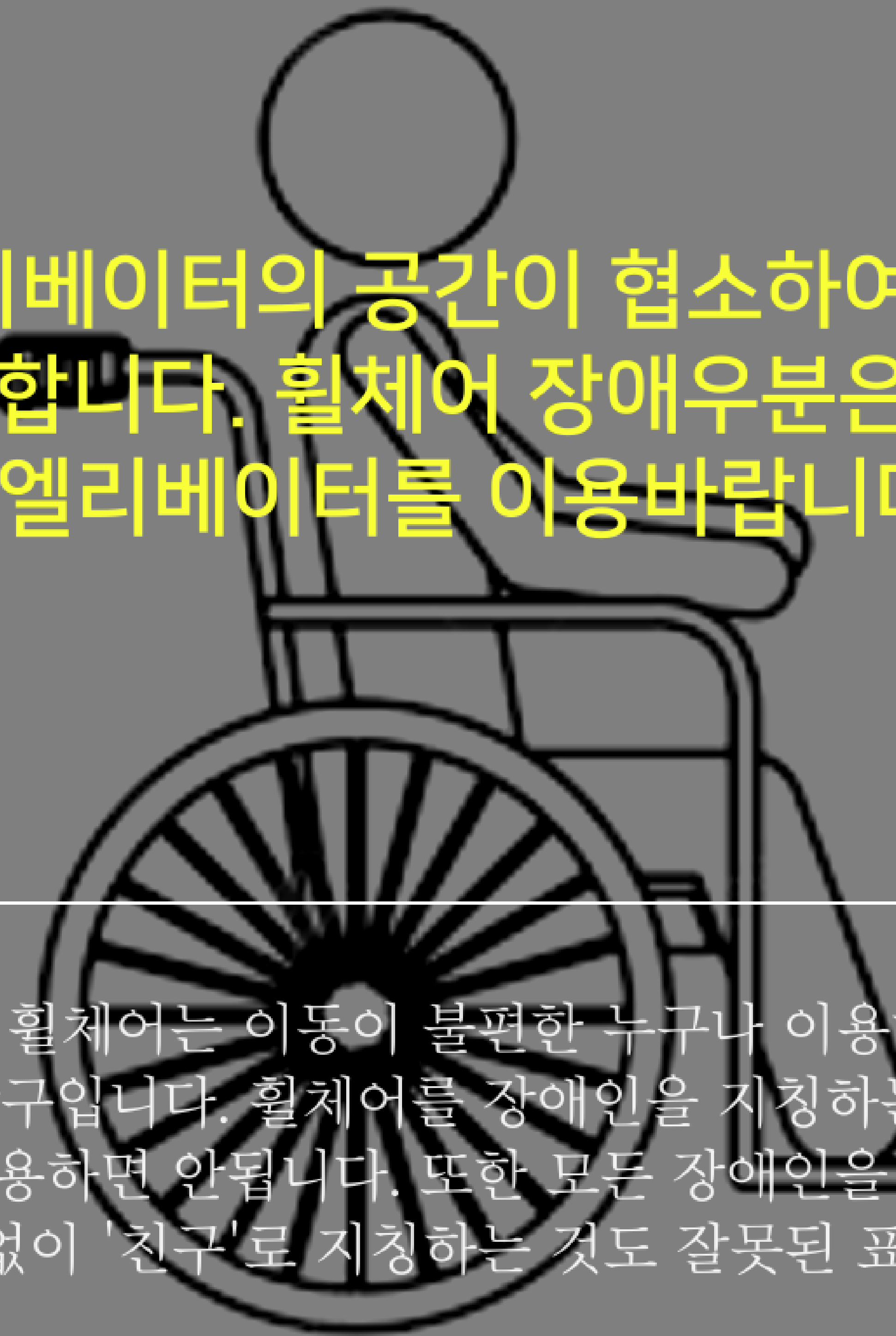
비장애인의 '양보'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

"이 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분을 위하여 양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곳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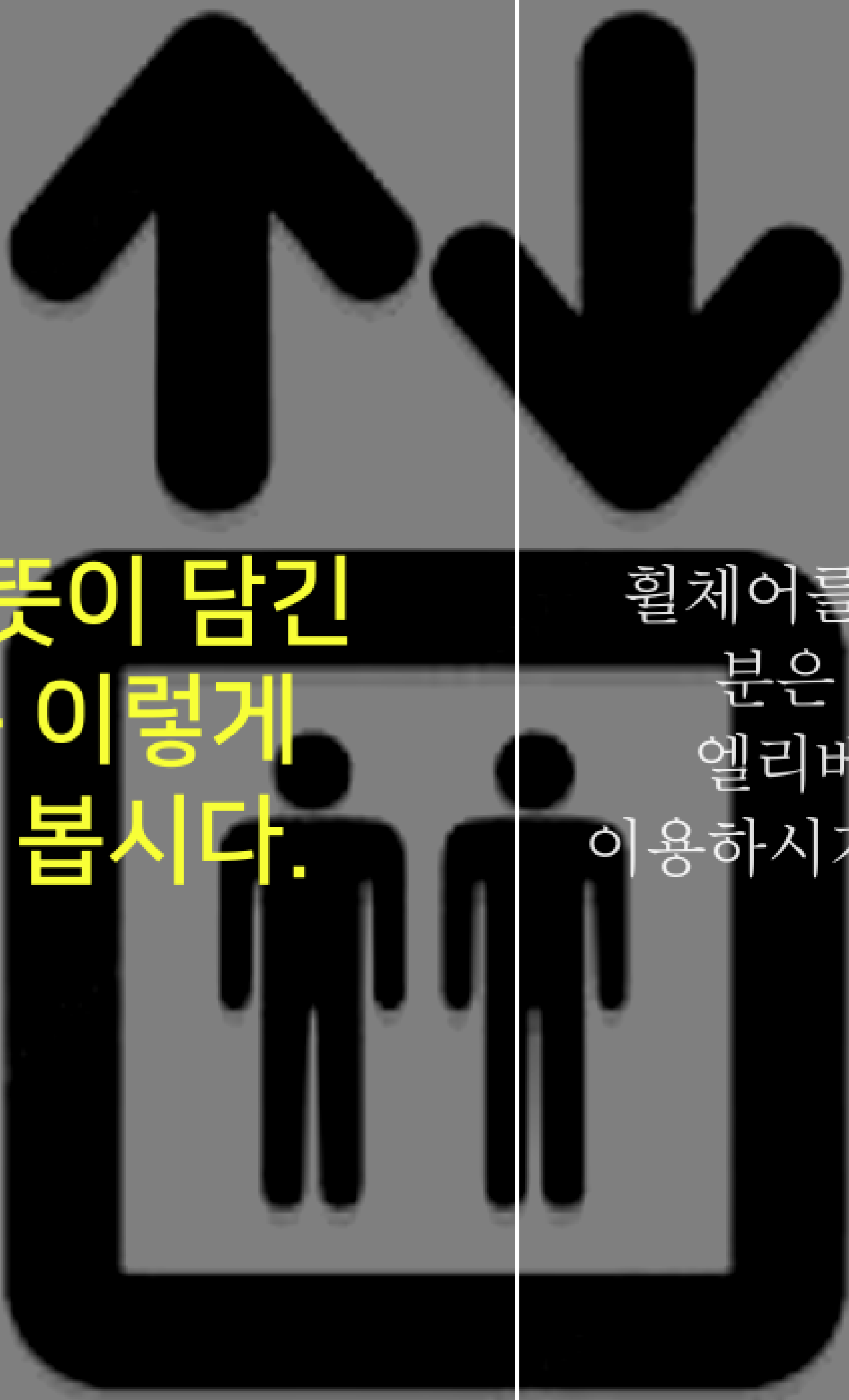
차별의 뜻이 담긴
안내문 이렇게 바뀌어
봅시다.

"이 곳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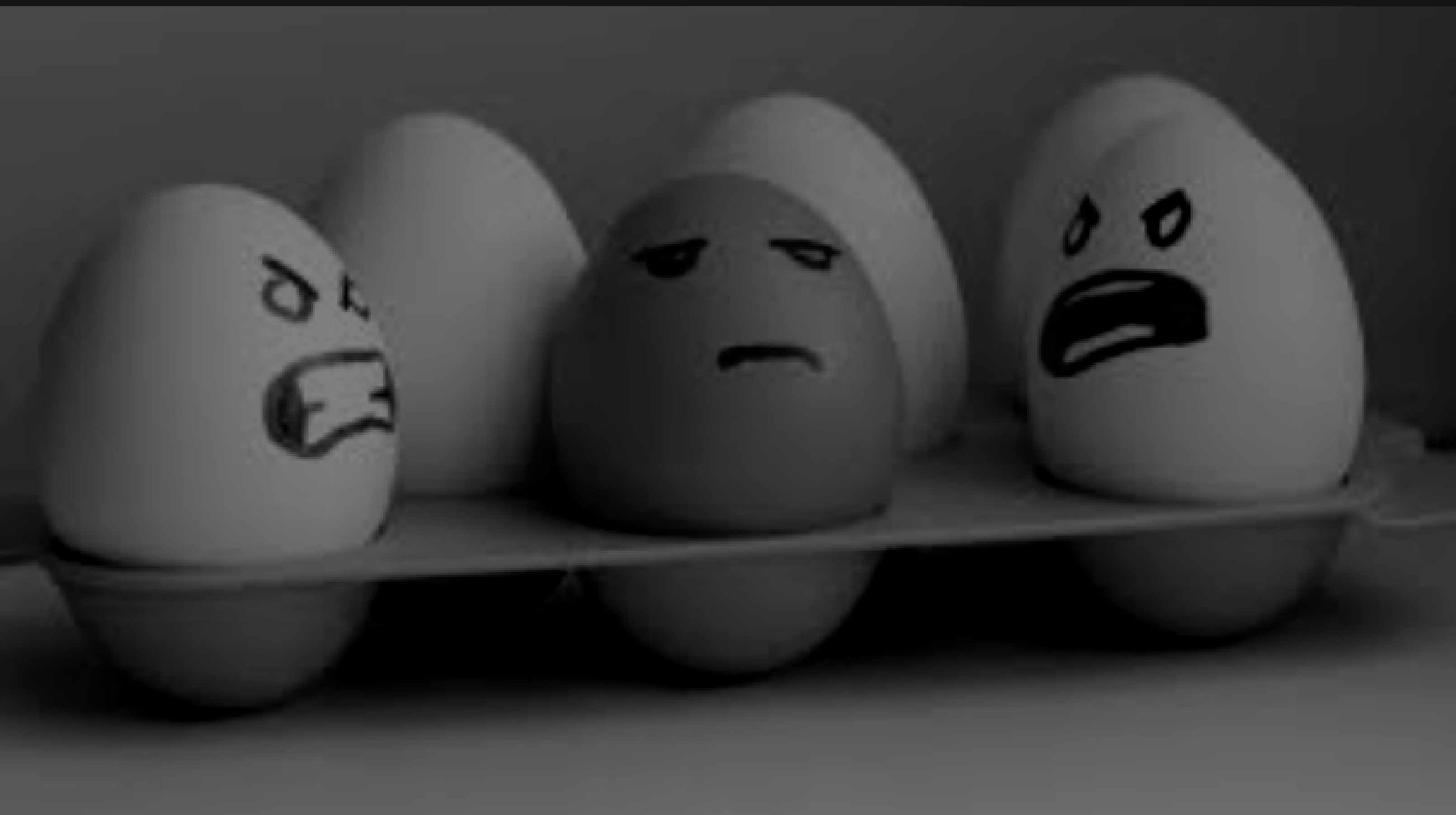
"엘리베이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탑승이 불가합니다. 휠체어 장애우분은 복도쪽 엘리베이터를 이용바랍니다."

휠체어는 이동이 불편한 누구나 이용하는 보장구입니다. 휠체어를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모든 장애인을 관계와 상관없이 '친구'로 지칭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차별의 뜻이 담긴
안내문 이렇게
바꾸어 봅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은 복도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는
표현들이 일상생활 구석구석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꼼꼼히 살펴 일상속에서의 장애 편견과 차별의 뜻이
담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